
2025년도

명예해양수산물 4/4분기 활동실적

2026. 01.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목 차



I .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운영현황	1
II . 2025년 4/4분기 활동실적 요약	2
III . 2025년 4/4분기 명예해양수산물별 세부 보고내용 ..	11
1. 사모아	11
2. 피지	14
3. 파푸아뉴기니	21
4. 아르헨티나	29
5. 인도네시아	34
6. 가나	39
7. 세네갈	48
8. 뉴질랜드	55
9. 모리셔스	59
 [참고] 명예해양수산물 현황 및 연락처	 65

□ 개 요

- (추진 배경) '09년부터 원양어업 거점 및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정보 수집, 현지 진출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명예해양수산물 위촉운영

* (근거 : 원양산업발전법 제22조)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을 명예해양수산물로 위촉, 연안국 자료·정보수집 등의 임무 부여

- (주요 임무) 해외 주재국의 원양·수산물 관련 자료·정보 수집, 투자환경 조사, 대한민국 국민의 연안국 투자에 대한 조언 등

□ 운영 현황

- 원양산업 또는 수산업 종사자 등 교민 위주로 '25년 현재 총 9개 지역에서 9명 활동
- 명예해양수산물 활동실적보고 (명예해양수산물 운영세칙 제4조)
 - 각 명예해양수산물별 활동내용을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수요자들에게 정보제공
 - (정기보고) 명예해양수산관은 매익월 10일까지 해외수산물협력센터 보고, 센터는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수시보고) 해난사고 등 긴급 상황 및 해양수산부, 업계 요청 정보·자료에 대한 수시보고

1. 사모아

◆ 활동실적 요약

○ (10월, 11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어획량 보고

○ (12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서태평양수산물관리위원회, 해양국립기념물 내 상업어업 재개 검토 착수 - 사모아, 세계 식량의 날 맞아 식량, 농수산 시스템강화 의지 재확인

2. 피지

◆ 활동실적 요약

○ (10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피지총리, BBNJ 조약 이행 통한 해양보존 리더십 재확인 - ADB, 피지 수자원·해양건강 개선 위해 1억3,500만 달러 지원
외교동향	- 주피지 한국대사관, 기후적응사업 중심으로 피지의 기후 대응 지원 - 중국·피지, 수교 50주년 맞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경제동향	- 피지, 물가안정과 가계지원 병행하며 2025년 경제성장률 3.2% 전망
기후위기 동향	- 라부카 피지총리, 유엔총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군소 도서국 보호 촉구

○ (11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피지, 불법어업 단속 강화 위한 어업법 개정안 통과 - 세계은행 지원 태평양 무역·물류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강조 - 참치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의지 재확인 - 현지 가공 확대 통해 참치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추진
외교동향	- 피지-일본, 무역·투자 협력 강화로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 (12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피지 수바항 버려진 선박 철거 및 난파선 관리체계 강화 - IUU 어업으로 연 5천만 달러 세수 손실... 단속체계 대폭 강화 - 세계어업의 날 맞아 ‘블루 트랜스포메이션’ 통한 수산업 혁신 선언
외교동향	- 중국-피지, 바누아레부 인프라 사업 공식화 및 일대일로 협력 확대 - 피지-일본, 로마바타-키즈나 파트너십으로 기후·해양·교육 협력 강화
경제·관광동향	- 설탕산업 생산 감소 속 정부 지원과 국제가격 상승으로 농가 소득 방어

3. 파푸아뉴기니

◆ 활동실적 요약

○ (10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해삼 사업 실시 - PNG Purese Seiner Vessel Days 정책의 변화

○ (11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2025년 PNG 건해삼 조업과 시장 동향 · 중국 해삼 공급 현황 · 해삼의 가격 하락 · 해삼 어업의 문제점 · 중국 상인들의 문제점

○ (12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주변국의 대 PNG 지원 사항 (호주, 중국, 일본, 필리핀, 한국 등)

4. 아르헨티나

◆ 활동실적 요약

○ (10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Malvinas, 오징어 어업 폐쇄: 18,000톤 및 조기 종료 - 공해에 대한 통제력 부족으로 아르헨티나 오징어 자원의 위협 - 마르델플라타 올해 첫 9개월 동안 30만톤 하역.
경제동향	- 수출 관세 면제요구

○ (11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2025년 수산물 수출 동향 요약
외교동향	-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은 화물사 철수 - 아르헨티나-우루과이 공동수역 내 연골어 보존을 위한 어업 제한 조치 시행

○ (12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2026년 오징어 시즌 개막일 결정
경제동향	- CAPEAR ALFA(수산 가공 상공회의소)는 경쟁력 회복을 위한 세금 감면과 개혁을 촉구
외교동향	-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중국 선박의 물결: 대륙붕에서 불법 지도 작성 감지

5. 인도네시아

◆ 활동실적 요약

○ (10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한국 기술 협력 받아 해양 모니터링 공간 관리 고도화 - 사업자 편의를 위한 수산물 가공·유통 허가제도 개선 - 인도네시아-한국, 블루이코노미 실현위한 스마트 캠퍼스 공동개발

○ (11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미국 정부로부터 새우 수출 인증 기관(CE) 공식 인정 - 서파푸아 소롱 지역의 해양공간 불법이용 중단 조치
산업·기술동향	- 해양·육지 공간 통합 위한 ‘워터프런트 시티’ 구상

○ (12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인도네시아 정부, 소규모 어업 혁신추진위해 장기플랜 발표 - IPMAPHERI 출범: 인도네시아 수산물 품질·시장 경쟁력 강화 시동 - 무허가 해양사업 적발시, 즉시 봉인조치 경고
환경동향	- 인도네시아정부, 블루카본과 국제 협력으로 기후 해결에 앞장서

6. 가나

◆ 활동실적 요약

○ (10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SDG 자문단 및 국가개발계획위원회(NDPC), 가나 지속가능한 해양계획(SOP) 검증 워크숍 개최 - IUF, 어업 부문 강화를 위한 ILO 협약 188 비준 촉구 - 가나 과학산업연구위원회(CSIR)와 가나국립양식협회, 「틸라피아·메기 금요일」 캠페인 출범

○ (11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가나, 소규모 어업 보호 위한 획기적 수산법 제정 - 수산부 장관, Hen Mpoano 의 GRC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포용적이고 성인지적인 협력 촉구
외교동향	- US 미국 비자 정책 복원, 가나 선원들에게 숨통

○ (12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대통령, 수산업 보호 위한 대책 발표 - 가나 경찰, 해양 작전 강화를 위한 신형 순찰정 인수
국제협력동향	- 국제 대서양 참치 보존위원회 (ICCAT) 제29차 정기회의의 스페인 세비야에서 개최

7. 세네갈

◆ 활동실적 요약

○ (10월)

구분	주요 내용
경제동향	- 2024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고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선정된 다카르 항

○ (11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다카르 항만청(PAD) : Sallau Lines의 친환경 선박 ‘L’ Océan Breeze’, 아프리카 첫 기항

○ (12월)

구분	주요 내용
세네갈 동향	- 세네갈 북동부지역 리프트 벨리얼 발생 현황 - 엠폭스 발생현황
인근 국가 동향	- 11월 26일 기니비사우 쿠데타 발생 - 최근 만리 내 테러단체 활동범위 확대

8. 뉴질랜드

◆ 주요 외교 활동

- (주)자이코 회사, 선원 격려차 방문 ('25.12.4)

◆ 활동실적 요약

- (10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뉴질랜드 어업, 수십 년 된 어족자원 데이터 갱신 착수 - 뉴질랜드 수산·양식업 확대를 위한 해양 공간 필요

- (11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세계 최초 해조류 나노셀룰로오스 바이오리파이너리 개소
환경 동향	- 뉴질랜드 해역, 해양 열파 증가로 인한 생태, 어업 위기 심화

- (12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수산업계, 코로나19 트롤 금지에 항소 제기 - (주)자이코, 트롤선박 구매 후 수리 중

9. 모리셔스

◆ 활동실적 요약

○ (10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세계 해사의 날 2025: 불렐 장관, 오세안 2025 사전 협의 대화 개시
국제협력동향	- 인도, 모리셔스에 6억 8천만 달러 규모 경제 지원 약속

○ (11월)

구분	주요 내용
국제협력동향	- 인도, 모리셔스에 6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특별 경제 패키지 발표 (포트루이스 항만 재개발 및 차고스 해양보호구역 개발 포함)
환경 동향	- 모리셔스, 차고스 제도 광범위 해양보호구역 선언

○ (12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모리셔스, 해양 안보 고위급 회의 개최 - 소말리아 해적 활동 재개: 인도양의 새로운 위협 시대

1. 사모아

◆ 10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 격
2025. 10. 9.	Clipper Oil (American Samoa)	\$2.87 gallon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00 M/T	Star-kist Samoa Co.제공
눈다랑어	(라운드)	\$1,300 M/T	
가다랑어	(라운드)	\$1,300 M/T	

다. 해양·수산업 동향

□ 다랑어 어획 동향

- 금월 아메리칸 사모아및 연근해어장인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및 눈다랑어는 0.3-0.6톤의 어획율을 보이고 있음

◆ 11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nn Fishing Company Limited	LadyAnn 2			파고파고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 격
2025. 11. 06.	Clipper Oil (American Samoa)	\$2.94 gallon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900 M/T	Star-kist Samoa Co.제공
가다랑어	(라운드)	\$1,400 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황다랑어는 0.3~0.5톤의 어획량을, 날개다랑어는 평균 0.2톤 어획량을 보임. 어획량이 아주 부진함

◆ 12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12.29.	Clipper Oil (American Samoa)	0.78 USD/L	경유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900 M/T	Star-kist Samoa Co.제공
눈다랑어	(라운드)	\$1,800 M/T	

다. 해양·수산업 동향

□ 서태평양수산물관리위원회, 해양국립기념물 내 상업어업 재개 검토 착수

- 서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위원회는 2025년 12월 16일, 태평양 해양국립기념물(MNMs) 내 상업어업 전면 금지 조치가 지역사회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 아래 규제 영향 분석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으며, 파파하나우모쿠아케아·로즈환초·마리아나 해구·퍼시픽 아일랜드 헤리티지를 대상으로 2026년 3월 회의에서 상업어업 재개 여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논의할 예정임.
- 위원회는 과학적 데이터 축적을 위해 제한적 어업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모니터링과 성과지표를 전제로 한 단계적 재개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논의 과정에서는 지역사회 식량안보와 생계, 정책 형평성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병존했고 2024년 서태평양 원양어업 매출이 약 1억 8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됨.

□ 미국, 제22차 WCPFC 회의에서 참치 관리 강화와 전자모니터링 도입 주도

- 미국은 2025년 12월 필리핀에서 열린 서부·중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참치 자원 관리와 수산 기술 도입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남태평양 알바코어 수확전략 채택과 눈다랑어 어업 관리 강화를 주도했음. 또한 전자모니터링 제도 도입 논의 구조를 확보하고, IUU 어업 대응, 강제노동 식별, 혼획 저감 등 보전·형평성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자국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제적 자원보전 기준 제고를 동시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사모아, 세계 식량의 날 맞아 식량·농수산 시스템 강화 의지 재확인

- 사모아는 2025년 10월 29일 아피아 푸갈레이 시장에서 세계 식량의 날(World Food Day 2025) 기념 행사를 개최했으며, 사모아 농수산부와 FAO 태평양 도서국 소지역사무소가 공동 주최해 200명 이상이 참석했음. 행사에서는 농업·수산업·식량시스템 투자가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의 핵심이라는 점과 정부·지역사회·개발 파트너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FAO는 사모아가 태평양 지역 식량·농업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함.

2. 피지

◆ 10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0. 10.	TOTAL	1,18 USD/L	MGO	내주변동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ALBACORE	10kg상	\$2,400/ ton	로인가공용(PAFCO)

다. 해양 수산업 동향

☐ 피지총리, BBNJ 조약 이행 통한 해양보존 리더십 재확인

- 뉴욕 공해조약회의에서 시티베니 라부카 피지 총리는 BBNJ 조약 발효를 계기로 연안국 협력과 포용적·데이터 기반 해양보존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자국 해역 100% 관리와 30%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목표로 한 피지의 해양 리더십과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음.

☐ ADB, 피지 수자원·해양건강 개선 위해 1억3,500만 달러 지원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피지의 수자원 안보와 해양·환경건강 강화를 위해 1억2,500만 달러 차관과 1,000만 달러 보조금을 승인하고, 수바 폐수처리장 개선과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지역 교육 허브 설립을 통해 수질 개선·해양생태계 회복·물 절약·탄소감축 및 태평양 도서국 상하수도 인력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라. 기타사항

☐ 피지, NDC 3.0승인으로 2035년까지 기후리더십 강화

- 피지는 2025~2035년을 대상으로 한 제3차 국가결정기여(NDC3.0)를

승인해 감축·적응·해양보호를 아우르는 기후위험 관리 전략을 국가개발계획과 연계하고, 1.5° C 목표 달성과 함께 해안관리·물안보·농업·재난회복력 등 핵심 부문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주피지 한국대사관, 기후적응사업 중심으로 피지의 기후대응 지원
 - 주피지 한국대사관은 홍수 조기경보시스템과 재난대피센터, 해양 열에너지 변환(OTEC) 사업 등 기후변화 적응 중심의 지원을 통해 피지의 재난 대응능력과 탄소감축·회복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피지, 물가안정과 가계지원 병행하며 2025년 경제성장률 3.2% 전망
 - 피지정부는 확장적·목표지향적 재정정책을 통해 2025년 경제성장률 3.2%를 유지하면서 물가 하락과 소득지원, 사회복지 재원 확대를 통해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피지, 수교 50주년 맞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중국과 피지는 수교 50주년을 맞아 상호존중, 상생협력, 정의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양국은 투자 확대, 장학금 제공, 기후변화 대응 지원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함. 주피지 중국대사 젠(Jian)은 이러한 관계의 기본 원칙들이 양국을 새로운 ‘황금기’로 이끌 것이라고 하며, 협력의 다각화를 강조했다. 또한 ‘진보의 동반자(Partners in Progress)’ 구상을 통해 중국은 피지산 제품의 수입을 확대하고, 현지 투자를 촉진하며, 기후행동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 및 지속가능발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11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동원산업	동원212호	2025-10-14 / 2025-10-23	선원교체 및 정비	수바항	참치연승선
동원산업	동원203호	2025-10-14 / 2025-10-24	선원교체 및 정비	수바항	참치연승선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11.11.	TOTAL	1.16USD/L	MGO	내주변동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ALBACORE	10kg 상	\$2,500/ ton	로인가공용(PAFCO)

라. 해양 수산업 동향

□ 피지, 불법어업 단속 강화 위한 어업법 개정안 통과

- 피지 의회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어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이번 개정으로 관계 공무원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특정 위반사항에 대해 어업면허를 즉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80년 된 기존 법률을 대체해 피지의 어업 관리 체계를 현대적 기준과 국제 모범사례에 맞추기 위한 조치임.
- 피지 어업부 장관은 이번 법안이 해양자원에 의존하는 850개 이상의 해안 지역사회의 식량안보와 생계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밝히며, 지속 불가능한 어획 관행과 자원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자원 소유자의 권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공무원에게 불법 어업 관련 증거를 수역뿐 아니라 시장, 가공공장, 주택 등지에서 도 추적·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

□ 피지, 참치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의지 재확인

- 피지는 의회 연설을 통해 서부·중부 태평양 참치자원이 과학적 관리와 역내 협력으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할당량 준수·어장 폐쇄·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참치 보존과 해양관리에서의 리더십을 재확인했음.

□ 피지, 현지 가공 확대 통해 참치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추진

- 피지는 피지 브랜드 참치제품의 현지 가공 및 수출을 확대하여 참치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어업부 장관은 태평양 지역에서 매년 약 150만 톤의 참치가 어획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해외에서 가공되어 태평양 국가들이 일자리와 수입 기회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음.
- 피지는 숙련된 연승어선단과 해안 가공공장을 모두 보유한 몇 안 되는 태평양 섬나라 중 하나로, 일본·미국·유럽연합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 경쟁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 장관은 정부가 고부가가치 해산물 수출을 포함한 참치 가치사슬 전반에 더 많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피지를 태평양 어업 허브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또한 피지와 파푸아뉴기니가 공동 주최한 제9회 태평양 참치포럼에서는 태평양 어업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 혁신, 형평성, 지속 가능한 무역이 주요 의제로 강조되었음.

마. 기타사항

□ 피지-일본, 무역·투자 협력 강화로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 피지는 2025 오사카 엑스포 참여와 무역·투자사절단 활동을 계기로 일본과의 협력을 재생에너지·기후회복력·디지털·농업 분야로 확대하고, 향후 파트너십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음

□ 피지총리, 태평양-ACP 무역장관회의서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협력 강조

- 피지 총리는 태평양-ACP 및 포럼 무역장관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이

2050 블루 태평양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역의 광범위한 무역 및 투자 의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힘.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이번 회의가 무역 긴장, 기후변화,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국제 경제가 재편되는 불확실한 시기에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며, 장관들이 유럽연합(EU)과의 협력, 태평양 무역 및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PTSDP) 등 주요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했다고 언급했음.

- 총리는 이번 논의가 지속가능한 농업, 어업, 기업 발전을 지역 무역성과와 연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태평양 지역 전반의 지속가능한 산업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또한 태평양-ACP 무역장관회의는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ACP) 국가 중 태평양 회원국들이 EU와 무역 및 개발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핵심 포럼으로, 태평양 국가들이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탐색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플랫폼이라고 평가했음.

◆ 12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2. 08.	TOTAL	1.17 USD/L	MGO	내주변동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ALBACORE	10kg상	\$2,600/ ton	로인가공용(PAFCO)

다. 해양 수산업 동향

□ 피지 수바항 버려진 선박 철거 및 난파선 관리체계 강화

- 피지는 사이클론 시즌을 맞아 수바항 내 버려진 선박의 안전 확보와

철거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현재 확인된 44척 중 17척이 철거되고 27척이 잔존하고 있음. 공공사업·기상·교통부는 버려진 선박이 해상안전, 환경, 항만 인프라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어 왔다고 밝힘.

- 정부는 나이로비 난파선 제거협약 가입을 포함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해당 협약을 통해 난파선 신속 제거, 선주의 비용 부담과 의무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해양안전청, 항만공사, 해군 등과 협력해 선박 계류 및 재배치 점검을 강화하고 있음.

□ 피지, IUU 어업으로 연 5천만 달러 세수 손실… 단속체계 대폭 강화

- 피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 인해 매년 약 5천만 달러의 재정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는 블루이코노미와 식량안보, 해양생물 다양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피지의 광대한 130만km² EEZ와 제한된 단속 역량으로 인해 취약성이 크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첨단기술 도입과 법제 강화, 지역 협력을 통해 단속 역량을 강화 중임. 정보기반 감시체계로 전환하고 해군자산을 활용한 물리적 순찰도 병행하고 있으며, 포럼어업청(FFA)을 통해 호주, 뉴질랜드 등과 공조하고 있음. 2025년 개정 어업법은 단속 권한 확대와 연안 고정벌금 제도 도입을 포함하고 있음.

□ 피지, 세계어업의 날 맞아 ‘블루 트랜스포메이션’ 통한 수산업 혁신 선언

- 피지는 세계어업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이며 회복력 있는 수산업 구축을 목표로 하는 ‘블루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함. 2025년 주제인 “수산업 부문의 청색 변혁”은 수산업이 국민복지와 고용, 식량안보, 문화유산에 핵심임을 반영함. 약 130만km² EEZ를 보유한 피지는 해안지역 주민 생계를 지탱하는 풍부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어업 관리의 현대화, 혁신기술 도입,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 중임. 정부는 블루 태평양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라. 기타사항

- 중국-피지, 바누아레부 인프라 사업 공식화 및 일대일로 협력 확대
 - 피지 총리와 저우젠 주피지 중국대사는 바누아레부 섬에서 약 3억 달러 규모의 중국 지원 인프라 사업을 공식화하였으며, 본 사업은 도로 개선과 22개 교량 신설을 통해 61개 마을, 15개 학교, 병원, USP 및 FNU 캠퍼스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은 피지와 일대일로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며, 경제적 유대 강화와 피지 국가개발 우선순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 피지 설탕산업 생산 감소 속 정부 지원과 국제가격 상승으로 농가 소득 방어
 - 피지 설탕산업은 최근 5년간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톤당 최소 85달러 가격 보장과 국제가격 강제로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며, 업계와 정부가 생산성 제고와 장기적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음
- 피지-일본, 로마바타-키즈나 파트너십으로 기후·해양·교육 협력 강화
 - 티베니 라부카 피지 총리는 도쿄 공식 방문을 계기로 일본과 55년간 이어진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로마바타-키즈나 파트너십’ 공동성명서 서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해양안보, 재난대비, 교육·문화교류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해 피지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3. 파푸아뉴기니

◆ 10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10.08.	TWL Logistics Ltd	0.7734 USD/L (부가세 10% 포함 안됨)	Diesel

나. 해양수산업 동향

□ 해삼사업 실시

- 지난 9월 보고서에 실시하기로 한 동 사업은 수산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미뤄진 결과, 10월 17일에 열리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함. 보통 이 라이선스는 지역별로 쿼터에 의해서 그 숫자가 결정되는데 반해 금어기 동안 불법 조업이 횡행한 데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몇몇 지방에 한해 라이선스가 발급될 예정임
- 이 사업은 보통 Buyer's, Storage, Export License의 3가지로 분류됨. 하지만, 금년에는 수도 Port Moresby에 Export License가 발급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그동안 불법 조업으로 인해 어족자원이 고갈되었다고 판단한 결과임. 재미있는 것은 이런 방안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수산업계임. 이는 많은 불법 어로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것임. 이는 곧 현 수산청의 감시, 감독이 부재하다는 방증이기도 함.

□ PNG Purese Seiner Vessel Days 정책의 변화

- 지난 9월 22~23일 원양협회, PNG 입어 선망선사, PNG 수산청 간 양자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양측의 이해관계 차이로 협상은 결렬되었으며 재협상 일자를 11월 7일로 합의한 상태에서 종료되었음. PNG 수산청은 VALATOP 시스템을 통한 자국 입장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 측의 절충 요구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다른 대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의 반론 제기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도 나타났으며, PNG 측은 이번 협상을 원만한 타결보다는 자국의 강력한 정책 방향을 전달하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PNG는 한국과의 협상이 매년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 선사의 높은 조업 효율성, 타국과 달리 협상이 부담스럽게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필리핀·대만·일본과 달리 실질적인 현지 투자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PNG 정부는 참치 자원을 기반으로 한 내륙 가공산업 확대와 2차 산업 육성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왔으며, LBFV 및 PNG Flag 정책, ‘Hub of Tuna in South Pacific’ 구상을 통해 자국 및 역내 도서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이를 위해 Fisheries Capital Limited(FCL)를 설립하고 자국 기업의 진출을 독려해왔으나, 행정 역량 한계로 계획 이행은 지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임.
- PNG는 군도수역을 활용해 자국 산업과 연계한 고용 창출, 자원 확보,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참치 가공산업을 정치·사회적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 과거 필리핀과 대만의 현지 투자가 성공 사례로 작용한 만큼, PNG는 단순 입어료 수입을 넘어 한국 측의 실질적인 현지 투자와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한국 원양산업 협회와 선사들은 PNG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립보다는 상호 요구를 조율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며, 향후 관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 11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11.10.	TWL Logistics Ltd	0.7871 USD/L (부가세 10% 포함 안됨)	Diesel

나. 해양수산업 동향

□ 2025년 PNG 건해삼 조업과 시장 동향

○ 중국 해삼 공급 현황

- 솔로몬 600톤, PNG 800톤 : 총 1,400톤 예상된 물량이 중국 시장으로 공급될 전망
- 또한, 세계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South Africa, Yemen 등 모두 합하면 3,000톤 이상의 해삼이 중국으로 향함. 중국의 산동성을 비롯한 3곳에서 양식 해삼의 막대한 수확량은 가격 하락을 주도함

○ 해삼의 가격 하락

- 위와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범 중국권의 해삼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며, 그 하락폭은 평균 20~30%에 이른다. 이는 중국뿐 만이 아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많은 화교권의 국가들도 포함된 것임
- 1990년대 이전까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주도하였으나, 1991년 이후 중국인들의 해외 직매를 계기로 점차적으로 중국인 진출이 이뤄진 이후에 현재는 거의 중국인들이 전세계 시장을 석권한 것으로 보임. 이를 다시 말하면 이전에 중국이 홍콩 등으로부터 수입을 하던 것이 이제는 역전이 된 상황임
- 중국의 불경기로 인한 자체 시장의 축소 및 중국 정부는 GACC (중국해관총서 : 중국정부의 세관기관으로 수입 및 수출업무 총괄 부서)주도의 수입조치 강화 등으로 남태평양의 많은 도서국들은 중국으로의 직수출이 안되고 있음

○ PNG 해삼 어업의 문제점

- 2009년 해삼 금어기가 시행된 후, 2017년 다시 재개되기까지 동 자원에

대한 운영 계획은 그 이전보다도 못한 상태로 시행됨. 중국인들의 국내 시장 직매가 이전에는 불법이었으나, 현재는 그것을 용인하는 상태로 되어 많은 혼란을 야기함

- 중국인들의 본격적인 진출은 불법과 합법의 줄타기를 하는 형태로 진보되는 중이며 이로인한 PNG 자원은 고갈되고 자국 어민들은 정당한 가치를 보전하지 못하고 있음
- PNG는 중앙정부의 무능과 부패, 수산당국의 근시안적 태도와 정책의 단절, 자국산업에 대한 무의지와 반복되는 실패, 자연, 직장 내 부정 카르텔의 강성, 그리고 자포자기적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국가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중국 상인들의 문제점

- 중국 상인들은 자원의 빠른 고갈을 초래하고, 가치 창조가 아닌 가치 하락을 주도하며, 타국 법과 규범을 무시한 부정, 부패 행태를 보이고 있음. 또한, 지속가능성을 포기한 근시안적 사업태도로 PNG 해삼산업의 자립을 저해하고, 중국정부과 개인들의 무지와 이기주의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12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 12. 8.	TWL Logistics Ltd	0.77 USD / L (부가세 10% 포함 안됨)	Diesel

나. 해양수산업 동향

☐ 주변국의 대 PNG 지원 사항

○ 호주

- 남태평양의 주요 국가이자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일부 해역에서는

공동 어로 구역을 운영하는 이웃 국가로서, 호주는 파푸아뉴기니(PNG)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PNG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고 있음. PNG는 1975년 호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올해는 독립 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함. 팬데믹 이후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남태평양의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는 호주는 PNG가 지정학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기울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민간 차원의 중국인 활동까지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 특히 중국이 PNG 서부주(Western Province)에 대규모 수산 개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외교·정책적 노력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중국의 진출이 무산된 바 있음. 서부주는 호주와 국경을 맞댄 지역으로, 당시 중국의 움직임은 호주의 전략적 후방을 위협하려는 시도로 인식되기도 하였음. 이후 호주는 해당 지역과 관련된 기존 공동어로 조약에 대해 다시 관심을 표명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PNG를 더 이상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이웃 국가로만 인식하지 않게 된 것으로 평가됨.

○ 중국 (본토)

- 8월 29~31일 포트모레즈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2차 경제특구 정상 회의는 총리 기조연설과 투자부 장관 리처드 마루의 주재로 개막했으며, 기존 외국 투자기업과 중국 수산업 대기업들이 참석함.
- 경제특구 추진을 위해 국제무역투자부 산하 SEZA가 설립돼 수입세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Madang주 PMIZ 지역은 30년간 지연된 참치 가공 프로젝트가 현정부의 관심 속에 재추진 중임.
- 이를 위해 수산청 산하 FCL이 투자자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수산청과 국제무역투자부가 경쟁적으로 지원 중임. 또한 라바울과 라에 지역도 참치 가공공장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라에는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졌지만 부두 협소가 문제로 지적됨.

○ 중국 (화교)

- PNG에는 다수의 중국계 상인이 진출해 있으며, 통상 이들을 화교로 분류하고 있음. 이들은 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 과거 중국 본토 출신 인력은 주로 기존 화교 밑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PNG에 정착하였으나, 현재는 오히려 화교가 중국 본토 출신 사업자 밑에서 일하는 구조로 역전된 상황임.

- PNG에서는 화교나 중국계 사업자 중에서 직접 조업선을 보유하고 조업을 수행하는 사례는 많지 않음. 이는 빈약한 인프라와 인력 여건, 낮은 부가가치 구조의 수산업 환경, 그리고 내국인 보호 중심의 정책 기조로 인해 외국인의 본격적인 진출이 현재까지도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임. 다만 2023년 이후 중국계 연승(Longline) 어선의 진입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화교들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임. 일부 화교는 수산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정·부패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영향력이 연근해 어업을 넘어 선망어업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한편 대만계 화교는 비교적 오랜 기간 PNG에서 활동해 왔으며, 한국과는 다른 방식의 사업 수완을 통해 PNG 수산업 전반에 깊이 관여해 온 것으로 평가됨. 과거에는 PNG 연승어업(Longline)을 주도하기도 하였으나, 시장으로의 운송 문제 등 물류상 한계로 인해 일부는 사업을 중단한 사례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PNG 수산청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지 여건에 대한 적응력도 매우 높은 편임. 또한 이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LBFV 사업에 진출하여 그 성과를 누렸으며, 최근에는 선망선을 신조하는 등 PNG에서 공격적인 형태의 선망어업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일본

- 일본은 JAICA 활동이 40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며, PNG 조업선 활동 역시 일본 기업에 의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1990년대 말 조업 활동이 현지화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직접적인 국내 수산업 활동은 중단되었으나, 같은 시기 Sanko Busan이라는 회사가 로컬 연승(Longline) 어업을 운영한 바 있음. 해당 사업은 대만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으나, 수출과 운송 여건 등의 문제로 결국 철수하게 되었음.

- 다만 이후에도 양자협약에 따른 알바코어(Albacore) 조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망선의 경우에도 일본 측에서 대규모 교섭단이 방문해 비교적 원활하게 협상이 타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는 JAICA와 ODA 등을 통한 일본의 막대한 현지 지원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2025년 중반 일본은 PNG 수산청을 통해 약 9천 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일부는 이미 집행된 상태임. 이와 관련하여 PNG 측 관리들이 일본에 대해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지를 먼저 논의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하였는데, 이는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었음. 보통 PNG 국민성은 외부 지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감사 표시가 크지 않은 편이나, 스스로 보은의 방안을 논의하는 관리들의 태도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음.
- 일본은 경비선 2척 지원, 부두 건설, 각 지역 로컬 수산시장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뢰 관계 속에서 PNG 수산청은 양자 협상 과정에서 입어로 인하 문제까지 자발적으로 논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음. 또한 야마하(Yamaha)는 모터와 덩기(Dinghy) 분야에서 PNG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JAICA와의 협업을 통해 연안 어업 개발을 추진 중임. 이 과정에서 PNG 수산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이며,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점령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실질적으로 극복하는 데에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 필리핀

- 현재까지 PNG에 선망어선 투입과 참치 캔 공장 가동 등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해온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필리핀임. 선망선 보유 규모에서도 필리핀이 가장 많은 선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망 관련 2차 가공 분야 역시 필리핀 기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투자해 온 것으로 파악됨.
- 선박의 노후화와 소형화로 인해 경쟁국인 한국, 대만, 일본에 비해 생산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나, 필리핀 선사들은 일찍이 LBFV

및 PNG 국적선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VD(Vessel Day) 비용을 절감하고, 군도 수역에 선제적으로 진입하여 안정적인 조업 기반을 확보해 왔음. PNG의 낙후된 인프라와 높은 2차 가공 비용은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지만, 수산청과 정부의 느슨한 행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현재 대부분의 필리핀 선사들은 2차 가공보다는 조업 수익 중심의 구조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고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현상은 대만 선사 역시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한국 선사들은 자국 선사 간 경쟁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선에 승선한 한국인 선장들과도 동시에 경쟁하는 현실에 놓여 있음.
- 한편 필리핀 선사들과 정부는 PNG에 대한 직접적인 개발 원조나 다른 형태의 공적 지원은 거의 없으나, PNG가 필요로 하는 고용 창출과 가공 수산물 수출을 지난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수산청과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 유지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국

- PNG에 원양선단이 진출한 지는 4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그동안 PNG 수산청에 공식적으로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성과나 기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아르헨티나

◆ 10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0. 8.	Epsol YPF (국영기업)	1.17 USD/L	MGO	9월부터 7%의 환률 상승으로 10월 중 3.3% 유류가격 인상 예고

나. 해양·수산업 동향

☐ 어업 부문 수출 관세를 면제요구

- 아르헨티나 수산업회의소(CAIPA)가 수산부 차관 후안 안토니오 로페스 카소를라에게 10월 31일까지 시행 중인 수출 관세 유예에 어업 부문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음. CAIPA에 따르면, 초기 조치는 곡물과 유지종자에 적용됐고 이후 쇠고기와 양봉 제품으로 확대됐지만, 해양 원산지 제품은 제외돼 있음. 국제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제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함.
- 수출관세 유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대통령 행정부의 조치임. CAIPA는 파타고니아와 마르델플라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어업 부문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것을 요청함. 최종 결정은 수산부 차관과 행정부에 달려 있음.

☐ Malvinas, 오징어 어업 폐쇄: 18,000톤 및 조기 종료

- 말비나스(포클랜드) 제도에서 물리고 오징어 어업이 18,000톤의 추정 어획량을 기록한 후 어젯밤 조기 폐쇄됨. 이 어업에 참여한 갈리시아 선단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어장으로 이동해야 함. 시즌 초반 낮은 바이오매스와 작은 표본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폐쇄 가능성이 예견됐으며, 활동 유지 의무로 일부 자신감이 있었으나 일반적인 조기 어장 비움 추세를 바꾸지는 못했음.

- 총 16척의 선박이 Pescapuerta, Pereira, Wofco, Copemar, Chymar 등 그룹과 연결되어 참여했으며, 51%는 말비나스 제도 점령 정부와의 합작 투자로 갈리시아 자본이 강하게 참여함. 선박들은 낮은 어획량과 증가한 운영 비용으로 인해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는 운영 수익성 저하를 초래함.
- 이번 조기 폐쇄는 자원 지속 가능성, 기업과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 부족, EEA 외 남대서양 갈리시아 어업에 미치는 경제적 위험 등 여러 우려를 남김. 최근 몇 년 롤리고 어업은 어획량 급감 등 심각한 역경을 겪었으며, 이는 즉각적 수익성뿐 아니라 해안 지역 사회와 해양 경제 전반의 구조적 생존 가능성을 위협함.

□ 공해에 대한 통제력 부족으로 아르헨티나 오징어 자원의 위협

- EIJ는 아르헨티나 오징어가 공해(201해리 인접 수역)에서 과잉 착취와 규제 공백, 심각한 노동 학대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대만·한국 선박이 집중된 대규모 지거 어업으로 조업 노력과 시간이 급증해 중 붕괴 위험과 생태계 교란이 커지고 있고, 강제 노동·폭력 등 인권 침해 사례도 다수 확인된 만큼 공해 집단 거버넌스 구축과 국가 간 과학 협력, 엄격한 노동·조업 통제가 시급하다고 촉구함

□ 마르델플라타는 올해 첫 9개월 동안 30만톤 하역.

- 1월~9월 사이 현지 항구 터미널의 오징어 수확량은 작년 동기 대비 7% 증가하며 매우 좋았음. 일반 배출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650,000톤으로 1% 증가함.
- 9월 30일까지 지역 해상 터미널에서 신고된 배출량은 약 30만 톤으로, 수산부 차관 통계에 따르면 299,962톤이 어획되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함.
- 2024년 마르델플라타가 초과 보유한 오징어 20,000톤은 후브시 헤이크 상륙 감소분 8%를 완화함. 1월~9월 합계 하역량은 전년 133,000톤 대비 121,000톤임.

◆ 11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 11. 07	EPSOL YPF (국영기업)	1.19 USD/L	MGO

나. 해양·수산업 동향

□ 2025년 수산물 수출 동향 요약

- 9월 수출 증가율은 오징어 판매량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했음. 이는 대구와 특히 새우 수출이 약 50% 감소하여 이를 상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음.
- 1월부터 9월까지 홍새우 누적 수출량은 41만 9천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만 4천 톤 증가해 0.6%의 미미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오징어 수출량은 19만 톤으로 48% 늘어나고 평균 가격도 11.5% 상승해 톤당 2,835달러를 기록했음. 반면 대구 필레는 6.6% 감소했으나 스페인 시장의 8% 상승 덕에 평균 가격이 소폭 오른 3,222달러를 유지했음. 통새우는 2024년 대비 53% 급감하여 34,000톤 미만을 기록했고, 이는 전체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
- 한편 메로(투스피쉬)와 킹크랩은 판매량이 28% 증가하고 단가가 15.4% 상승해 총수익이 47.3% 늘어나는 등 고가 어종 중심의 수출 회복세를 보였음.

□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은 화물사 철수

-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은 화물량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마르텔 플라타 항구에서의 중간 기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음. 마르텔 플라타와 브라질 산토스 항을 연결하는 ‘아틀라스 서비스’는 약 1년 반 전 어업·농공업·공산품 수출을 위한 안정적 물류 통로로 출범했으나, 창고 완공 지연과 수요 부진으로 인해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했음.

- 이에 현지 어업 부문은 감자 생산시설을 포함한 수출 물량을 확대해 CMA의 결정을 번복시키려는 노력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음. 실제 화물량이 예측치를 크게 밀돌면서 운송비 대비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CMA CGM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마르델플라타 항 기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음.

□ 아르헨티나-우루과이 공동수역 내 연골어 보존을 위한 어업 제한 조치 시행

-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공동 어업 구역에서 상어·가오리 등 연골어종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CTMFM은 결의안 No.12/2025를 승인해, 과학적 권고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지정 해역 내 바닥 트롤 어업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양국 간 공동 관리와 과학협력을 제도화했다.

◆ 12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 12. 07	EPSOL YPF (국영기업)	1.22 USD/L	MGO

나. 해양·수산업 동향

□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중국 선박의 물결: 대륙붕에서 불법 지도 작성 감지

-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는 오징어 시즌을 앞두고 EEZ 경계선인 ‘마일 201’ 인근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동 중인 외국 선박 148척을 적발하고, 향후 500척 이상이 추가로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오징어(*Illex argentinus*)는 외화 수입 측면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어종으로, 매년 11월부터 6월까지 동아시아(중국·한국·대만) 국적의 대규모 원양 선단이 수천 마일

을 이동해 해당 해역에서 집중적으로 조업함. 해안경비대는 해상·공중 순찰과 자체 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감시를 병행하고 있으며, 과거 중국 국적 어선들이 아르헨티나 대륙붕 및 남극 해역에서 격자형 항해를 하며 불법적 지도 제작 및 의심 활동을 반복해 온 사례도 확인된 바 있음.

- 중국 국적 어선 루칭위안위 205호가 아르헨티나 대륙붕과 EEZ 경계 인근에서 해저 탐사로 추정되는 격자형 항해를 반복하며 비우호적 행위 논란이 발생함. 해당 해역은 남대서양의 핵심 어장 ‘블루홀’이 위치한 전략적 구역으로, 동일 선단의 불법 조업·멸종위기종 포획 등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됨.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외교적 대응과 해양 주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CAPEAR ALFA(수산 가공 상공회의소)는 경쟁력 회복을 위한 세금 감면과 개혁을 촉구

- 마르텔플라타 수산 가공 상공회의소는 높은 세금·수수료·노동비·물류비 등 과도한 비용 구조로 수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며, 정부에 세제·노동·규제 개혁과 지원 대책을 재차 요청함. 또한 수출 관세 인하, 기술 도입과 고용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효과를 평가할 기술 위원회 설립을 요구했으며, 향후 노동 및 규제 개혁이 본격 논의될 경우 수산업 경쟁력 회복을 기대하고 있음.

□ 2026년 오징어 시즌 개막일 결정

- 연방수산위원회(CFP)는 INIDEP의 기술 평가를 바탕으로 아르헨티나 어선주협회(CAPA)의 요청에 따라 2026년 오징어(일렉스) 시즌 조기 개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단계적으로 1월 2일(남위 49~52도), 1월 7일(남위 44도 이남, 일정 조건 충족 선박), 1월 12일(잔여 함대)부터 순차 조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음.
- 대상 자원은 1월 중순 이전 산란을 마치는 개체로, SSP 개체군과의 중첩이 적어 조기 어획이 가능하다는 과학적 판단에 근거함. 한편 남서대서양 201마일 EEZ 경계 인근에는 매년 대규모 외국 오징어

선단이 집결하며, 특히 2~5월 집중 어획 시기에는 국제해역에서 통제 없이 대규모 조업이 이루어져 불법·무규제 조업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5. 인도네시아

◆ 10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10.08	Pertamina	0.99 USD/L	디젤유 (MDF)

나. 해양·수산업 동향

☐ 한국 기술 협력 받아 해양 모니터링 공간 관리 고도화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양자원의 실시간 관리와 활용 강화를 위해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OMS)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해양 공간관리 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오션과 연계할 계획임.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IT 기업 PT. IGS와 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기술 기반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해양공간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모니터링·평가 시스템 모델 개발 및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병행 추진할 예정임. 한국은 KIOST가 개발한 KOOS를 이미 운영 중임.

☐ 사업자 편의를 위한 수산물 가공·유통 허가제도 개선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공·유통업 종사자의 허가 취득을 간소화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기반 허가제 시행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안)」을 마련 중이며, 이는 2025년 제28호 정부령에 근거하여 기존 제도를 대체할 예정임. 새로운 제도는 SPDI, SKP, HACCP 인증 등을 포함하고, KBLI 기준에 따른 업종별 세

부 허가 요건을 규정하여 수산업 종사자 보호, 소득 증대, 교육 효과를 동시에 도모함. 해양수산부는 직접 허가를 담당하며, 제도의 목적은 법적 안정성 확보와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및 일자리 창출에 있음.

□ 인도네시아-한국, 블루이코노미 실현위한 스마트 캠퍼스 공동개발

- 인도네시아는 한국 Vogo 그룹과 협력하여 해양·수산 스마트 캠퍼스 및 글로벌 리더 인재개발 지원센터(GLTDSC)를 구축함으로써 해양수산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고 블루 이코노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스마트 캠퍼스에는 학사·행정 시스템 통합, e-러닝 플랫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IoT 등 지능형 기술이 도입되며, GLTDSC는 대학생, 교수진,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연구·교류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임. 본 협력은 9월 9일 자카르타에서 공식 체결되었으며,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 11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08.05	Pertamina	1.05 USD/L	디젤유(MDF)

나. 해양·수산업 동향

□ 인도네시아 해수부, 미국 정부로부터 새우 수출 인증기관(CE) 공식 인정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미국 정부로부터 새우 수출을 위한 공식 인증기관(Certifying Entity, CE)으로 인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자바(Java)와 람퐁(Lampung) 지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새우는 KKP가 발급한 품질인증서(Quality Certificate)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게 되었음. 이번 조치는 미국 수입정보 제99-52호에 따른 것으로,

원산국 공인기관이 발급한 ‘세슘-137 오염 없음(No Contamination of Cesium-137)’ 인증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제도임.

- 해당 조치는 수입 제한이나 금지가 아닌 추가 인증 요건에 해당하며, 자바·람퐁 지역 외에서 생산된 새우의 대미 수출은 기존 절차가 그대로 유지됨. 현재 KKP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세슘-137 무오염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인증 과정에는 원자력감독청(BAPETEN)과 국가연구혁신청(BRIN)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
- 후속 보도에 따르면 KKP는 세슘-137 불검출 인증을 받은 새우를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했으며, 이는 2025년 10월 31일 자카르타 탄중프리옥 항만에서 미국 FDA 수입경보 #99-52 시행 첫날에 맞춰 이루어졌음. 해당 물량은 뉴욕과 LA로 선적된 후, 다음 날 마이애미와 잭슨빌로도 추가 선적되었으며, 자바·람퐁 지역 새우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이 공식 인증되었음.

□ 해양·육지 공간 통합 위한 ‘워터프런트 시티’ 구상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양과 육지의 공간계획을 통합하는 ‘원스페이셜 플래닝(One Spatial Planning)’ 정책을 추진해 공간 갈등과 정책 중복을 줄이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려 했음. 이와 함께 사방, 바땅, 비똥, 모로타이, 마룬다, 세마랑, 수라바야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워터프런트 시티(Waterfront City)’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해당 정책은 해양수산부 창립 26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음.
- 국가 해양공간계획은 국가 지역공간계획(RTRWN)과 통합 중이며, 2025년 12월 공식 제정이 예정되어 있음. 해양수산부는 다수의 해양·연안 공간계획을 완료했으며, 이번 통합은 블루이코노미 실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핵심 제도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음.

□ 서파푸아 소롱 지역의 해양공간 불법이용 중단 조치

-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파푸아 소롱 지역 사오카(Saoka)에서 ‘해양

공간 이용활동 적합성 승인서(PKKPRL)’ 전용부두 지정 문서 없이 안산암 등 C형 광물 채굴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공간을 이용한 기업들의 무허가 활동을 적발하고, 10월 30일 현장 점검을 통해 전용부두 운영을 일시 중단했음. 해양·도서특별경찰과 소롱 해양자원관리국의 조사 결과 항공사진·위성영상으로 무허가 사용이 확인되었으며, 정부는 인허가 미비 해양공간 이용에 대해 행정 제재를 경고하고, 이번 조치가 해양환경 보호와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장관 지침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 12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12.04.	Pertamina	1.05 USD/L	디젤유(MDF)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Mackerel Tuna		2.3 USD/kg	
Skipjack Tuna		1.9 USD/kg	
Milkfish		2.06 USD/kg	
Frozen Squid for export		6.03 USD/kg	
Frozen Prawn for export		7.28 USD/kg	

다. 해양·수산업 동향

☐ 인도네시아정부, 블루카본과 국제 협력으로 기후 해결에 앞장서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COP30 회의에서 맹그로브와 잘피 등 블루카본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음. 해양관리국 코스와라 국장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 기반 기후해결책을 강화하고자 하며, 캐나다·영국·웨스턴·GGGI 등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음. 또한 COP26 이후 블루카본 생태계가 가장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기후 대응뿐 아니라 연안 주민의 생계와 지역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 인도네시아는 제2차 국가결정기여(SNDC)에 블루카본을 처음으로 반영하고 국가 차원의 블루카본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향후 블루카본 크레딧과 블루본드 등 새로운 자원 조달 수단 도입과 함께 국제 협력 확대를 통해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 인도네시아정부, 소규모 어업 혁신추진위해 장기플랜 발표

-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규모 어업 종사 어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어업관리 국가행동계획(RAN-PPSK)을 공식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2위 수산물 생산국으로 전체 어획량의 95%가 소규모 어업에서 발생할 만큼 해당 부문이 국가 경제와 식량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어민들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 장비·시설 부족, 사회적 인식 저하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이에 정부는 FAO 국제 가이드라인과 국내 법률을 기반으로 사회보장 강화, 시장 접근성 확대, 어민의 장기적 경제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한 장기계획을 수립했음.
- 또한 측정어업 등 5대 핵심 프로그램을 통해 어획량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 보호와 어민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 가능한 어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IPMAPHERI 출범: 인도네시아 수산물 품질·시장 경쟁력 강화 시동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11월 30일 수산물 품질관리·시장 분석 전문가 협회(IPMAPHERI)를 공식 출범시켜, 전문가 역량 강화와 수산업체 지원, 국민 대상 수산물 영양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음. IPMAPHERI는 수산식품 품질·안전성 강화, 가공·유통 부문 고도화와 부가가치 확대, 국내외 시장 분석, 국가 영양급식 프로그램(MBG)용 안전한 수산물 공급, 블루이코노미 기반의 지속 가능한 유통체계 확산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협회장 압둘 라흐만(Aab) 주도로 현재 1,050명의 품질 전문가와 478명의 시장분석가가 등록돼 향후 체계적인 협력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됨.

□ 무허가 해양사업 적발 시, 즉시 봉인조치 경고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양공간 이용 허가(KKPRL) 제도를 기반으로 해양 공사·사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북수마트라 델리 세르당 지역에서 약 51.6헥타르 해역에 대해 허가 없이 구조물 설치와 매립 공사를 진행한 업체를 적발해 현장을 봉인하고 공사를 즉시 중단했음. 정부는 KKPRL이 단순 규제가 아닌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역사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필수 절차임을 강조하며, 해당 업체에 공사 중단, 투자 규모에 따른 행정벌 부과, 향후 허가 절차 배제 등의 제재를 적용할 방침임.

6. 가나

◆ 10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fko	Afko 805	2025-08-26/ 2025-09-10	하역 및 선박수리	Tema	조업중
Afko	Afko 808	2025-08-05/ 2025-09-19	선박등록 및 수리	Tema	조업중
Panofi	Master	2025-09-11/ 2025-09-14	하역	Abidjan	조업중
Panofi	Commander	2025-09-11/ 2025-09-19	하역	Abidjan	조업중
Panofi	Queen	2025-09-24/	하역	Abidjan	조업중

		2025-09-19			
Panofi	Discoverer	2025-09-09/ 2025-09-12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Path finder	2025-09-22/ 2025-09-24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Grace	2025-09-15/ 2025-09-19	전재	Tema	조업중
Panofi	Fore runner	2025-09-04/ 2025-09-09	하역	Abidjan	조업중
DH	Sea plus 87	2025-09-20/ 2025-10-24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3	2025-09-25	하역	Tema	하역중
DH	Iris Queen	2025-09-18/ 2025-09-23	하역	Tema	하역중
Agnes Park	Agnes 1	2025-09-18/ 2025-10-23	하역	Tema	하역중
Rico	Rico Siete	2025-09-10/ 2025-09-18	하역	Tema	조업중
Dicha venture	Dicha Uno	2025-10-27	하역	Abidjan	하역중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9.30	GHANA OIL(GOIL)	0.83 USD/L	MGO	양상급유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ellowfin tuna	10kg up	USD 2,000 / Mt	
Yellowfin tuna	10kg under	USD 1,600 / Mt	
Skip jack tuna	3.4kg up	USD 1,500 / Mt	
Skip jack tuna	1.8kg up	USD 1,450 / Mt	
Skip jack tuna	1.5kg up	USD 1,300/ Mt	
Skip jack tuna	1.5kg under	USD 1,150 / Mt	

라. 대외 활동 내역

일자/장소	지원(협의) 회사(기관)	지원(협의) 내용
2025. 09. 05/ 수도 Accra 한국 대사 관저	가나 수산장관 Emilia Arthur	한국의 날 행사 참석

마. 해양·수산업 동향

□ SDG 자문단 및 국가개발계획위원회(NDPC), 가나 지속가능한 해양 계획(SOP) 검증 워크숍 개최

- 가나 SDG 자문단과 NDPC가 「지속가능한 해양계획(SOP)」 초안 검증 워크숍을 개최함. 이번 계획은 해양 생태계 보전과 블루 이코노미 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 문서로, 해양 자산·건강·안보를 중심으로 과학적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했음.
- 가나는 불법 어업, 해양 오염, 기후 변화 등으로 해양 자원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해양 공간 30%, 2050년까지 100%를 지속가능 관리 체계에 편입하기로 약속함. 전문가들은 SOP가 투자 지침, 기관 간 협력, 식량안보, 일자리 창출 등 국가 발전의 핵심 로드맵이 될 것으로 평가했음.
- 이번 SOP는 가나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블루 이코노미 성장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와 경제적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 IUF, 어업 부문 강화를 위한 ILO 협약 188 비준 촉구

- 아크라에서 열린 ‘아프리카 수산업 노동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위한 연대’ 회의에서는 IUF가 ILO 협약 제188호 비준을 촉구하며 글로벌 해산물 가치사슬 내 노동 착취 문제와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함. 가나 GAWU는 수산업이 국민 단백질 섭취의 약 60%를 담당하고 250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핵심 산업임을 설명하는 한편, 어족 고갈, 열악한 노동환경, 아동노동 및 인신매매 문제를 지적함.
- 가나 정부는 「수산 및 양식업법(법률 제1146호)」과 Torkor 모델을

통해 아동노동 근절, 복지 향상, 자원관리 및 양식업 육성을 추진 중임을 밝히며, 이번 회의는 아프리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와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였음.

□ 가나 과학산업연구위원회(CSIR)와 가나국립양식협회, 「틸라피아·메기 금요일」 캠페인 출범

- 가나 CSIR와 가나국립양식협회(NAA)는 아크라에서 「틸라피아·메기 금요일」 캠페인을 출범하여 국내산 어류 소비 확대, 양식어가 소득 증대, 출하가·소비자가 간 가격 격차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본 캠페인은 틸라피아 소시지, 훈제 틸라피아, 어분, 건어포 등 가공제품 다양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과 수입 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하며, 양식산업 가치사슬 강화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 중임. 가나 정부는 소규모 양식어가의 기술·사료비·인허가 문제 해소를 위해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 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류가 국민 동물성 단백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가수산양식법 2025」 제정을 통해 양식업을 수입 대체,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임.

◆ 11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fko	Afko 805	2025-10-17/	계류	Tema	계류중
Afko	Afko 808	2025-10-27/	하역	Tema	하역중
Panofi	Master	2025-10-16/ 2025-10-19	하역	Abidjan	조업중
Panofi	Commander	2025-10-18/ 2025-10-21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Queen	2025-09-24/ 2025-09-28	하역	Abidjan	조업중

Panofi	Discoverer	2025-10-08/ 2025-10-12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Path finder	2025-09-22/ 2025-09-24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Grace	2025-10-23/ 2025-10-26	하역	Abidjan	조업중
Panofi	Fore runner	2025-10-07/ 2025-10-10	하역	Tema	조업중
DH	Sea plus 87	2025-10-23/ 2025-10-29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3	2025-10-15/ 2025-10-26	하역	Tema	하역중
DH	Iris Queen	2025-10-29/	하역	Tema	조업중
Agnes Park	Agnes 1	2025-10-08/ 2025-10-12	계류	Tema	계류중
Rico	Rico Siete	2025-10-28/	하역	Abidjan	하역중
Dicha venture	Dicha Uno	2025-10-03/ 2025-10-17	신규 입어	Abidjan	조업중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0. 31.	GOIL	0.88 USD/L	MGO	양상급유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ellowfin tuna	10kg up	USD 2,000 / Mt	
Yellowfin tuna	10kg under	USD 1,600 / Mt	
Skip jack tuna	3.4kg up	USD 1,400 / Mt	
Skip jack tuna	1.8kg up	USD 1,350 / Mt	
Skip jack tuna	1.8kg under	USD 1,200/ Mt	
Skip jack tuna	1.5kg under	USD 1,050 / 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US 미국 비자 정책 복원, 가나 선원들에게 숨통 — 해양청장

- 가나 해사청(GMA) 청장 Ali Kamal Deen은 최근 복원된 미국 선원 비자 정책을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했음. 그는 미국의 비자 제한이 가나 해운 산업을 거의 마비시킬 뻔했다며, 가나가 세계 선원 공급 상위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7월에 5년 복수비자에서 3개월 단수비자로 변경했으나, 최근 다시 복수비자로 복원함.
- Kamal 청장은 또한 브라질의 선원 입국 카드 제도로 인해 가나 선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결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 등재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함. 브라질은 쿠폰 기반에서 칩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라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 이에 Dorcas Affo Toffey 교통부 차관은 가나 정부가 GMA를 전폭 지원하고, 미국·브라질의 비자 및 입국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대응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함.

□ 가나, 소규모 어업 보호 위한 획기적 수산법 제정

- 가나 정부는 소규모 어업 생계 보호와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수산 및 양식법」을 제정하고, 연안배타구역(IEZ)을 6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해 산업어선 접근을 제한했으며, 산업어선에 EMS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법어업 처벌을 강화했음.
- 또한 수산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확대하고 EU 옐로카드 해제를 위한 수출 규정 준수를 강화해 식량안보와 어민 보호를 도모했으나, 산업어선 비용 부담 증가와 단속 실효성, 미국 원조 중단에 따른 EMS 확산 지연 등으로 제도 이행력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수산부 장관, Hen Mpoano 의 GRC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포용적이고 성인지적인 협력 촉구

- 가나 수산양식개발부 장관 Emielia Arthur는 아크라에서 열린 헨 음포아노(Hen Mpoano)의 ‘성인지적 보전(GRC)’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성인지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새로운 협력 의지를 촉구했음.
- Hans Wilsdorf 재단 지원으로 추진되는 GRC 프로젝트는 소형어업 공동관리, 지역 감시체계, 해양보호구역(MPA)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며, 노르웨이 정부와 IUCN-RISE 챌린지 후원 아래 성평등과 성폭력 예방을 어업 거버넌스에 통합하고 있음. 행사에는 노르웨이 대사 John Mikal Kvistad와 Hen Mpoano 이사 Kofi Agbogah가 참석해 국제 협력과 여성 역량 강화 성과를 평가했으며, 이번 프로젝트 출범은 가나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블루이코노미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 12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fko	Afko 805	2025-10-17/	계류	Tema	계류중
Afko	Afko 808	2025-11-01/ 2025-11-08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Master	2025-11-18/ 2025-11-21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Commander	2025-11-13/ 2025-12-17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Queen	2025-11-05/ 2025-11-09	하역	Abijdan	조업중
Panofi	Discoverer	2025-11-19/ 2025-11-23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Path finder	2025-11-03/ 2025-11-06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Grace	2025-10-23/ 2025-10-26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Fore runner	2025-11-05/ 2025-11-09	하역	Tema	조업중

DH	Sea plus 87	2025-10-23/ 2025-11-01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J	2025-11-15/ 2025-11-20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Queen	2025-11-01/ 2025-11-05	하역	Tema	하역중
Agnes Park	Agnes 1	2025-11-03/ 2025-11-06	하역	Tema	조업중
Rico	Rico siete	2025-10-03/	하역	Tema	계류중
Dicha Venture	Dicha Uno	2025-11-24/	하역	Abijdan	하역중
Dicha Venture	Dicha Siete	2025-11-24/ 2025-11-28	하역	Abijdan	조업중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1. 30.	GOIL	0.85 USD/L	MGO	양상급유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ellowfin tuna	10kg up	USD 1,850/MT	
Yellow fin tuna	10kg under	USD 1,550/MT	
Skip jack tuna	3.5kg up	USD 1,500/MT	
Skip jack tuna	1.8kg up	USD 1,350/MT	
Skip jack tuna	1.8kg under	USD 1,200/MT	
Skip jack tuna	1.5kg under	USD 1,050/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대통령, 수산업 보호 위한 대책 발표

- 가나 대통령 마하마는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연안 소규모 어업 전용구역(IEZ)을 6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개혁 조치를 발표했음. 새로 제정된 「수산 및 양식업법 2025(Act 1146)」은 IUU 어업 처벌 강화와 공동관리 체계 강화를 포함하며, 어민·어상인의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했음.
- 전국 어민·어상인 회의에서는 신법 이해, 공동체 기반 모니터링, IUU 대응,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의 통합 등이 논의되었음. 정부는 케이프 쓰리 포인트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승인하고, 국가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6대 축 기반으로 추진 중임을 밝힘.
- 대통령과 수산부 장관은 전통 지도자와 공동체의 역할이 수산업 지속가능성과 변혁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공동체 간 협력 강화를 약속했음.

□ 가나 경찰, 해양 작전 강화를 위한 신형 순찰정 인수

- 가나 경찰청은 해양경찰대의 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터키에서 제작된 아본급(Avon Class) 순찰정 4척을 새로 인수했음. 이번 인수는 UNODC, 미국 대사관, 일본 정부 등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음. 새 순찰정은 고속·고안정성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전직 경찰청장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음.
- 순찰정은 해양 법 집행, 수색·구조, 순찰, 긴급 대응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며, 테마 항에서 열린 인도식에는 전직 경찰청장, 해군 관계자, 다수의 고위 경찰 관계자가 참석했음. 내무 장관은 이번 인수를 해양 안전 강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하며, 블루 이코노미 발전을 위한 강력한 해양 집행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찰청장은 가나의 긴 해안선과 광대한 EEZ가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며, 신규 순찰정이 불법 어업, 밀수, 해양 범죄 대응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정부, 항만청, 국제정의 선교회, UNODC 등 국내외 기관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해양경찰 대원들에게 장비를 전문적으로 활용해 국가 해양 영역을 보호할 것을 당부했음.

□ 국제 대서양 참치 보존위원회 (ICCAT) 제29차 정기회의 스페인 세비야에서 개최

- 대서양 참치 보존 국제위원회(ICCAT)는 스페인 세비야에서 제29차 정기회의를 열어 주요 어종의 총허용어획량(TAC)과 쿼터를 재조정하고 12건의 권고와 3건의 결의를 채택했으며, 카리브해 SIDS 국가들의 청새치 제재를 일부 조정하고 BBNJ 협정(2026년 1월 발효 예정) 이행을 대비한 새로운 결의도 채택했음.
- 이와 함께 2026년 이후 가나를 포함한 대서양 연안국 참치 선망선에 대해 TAC · 쿼터 적용, 조업 해역 제한, 2개월 금어기, FAD 사용 제한, 상어 혼획 규제 강화가 확정되었으며, 가나 선망선은 가다랑어 · 황다랑어 중심 조업을 유지하되 VMS · 보고체계 강화를 통해 EU 시장 접근과 IUU 방지, 연안국 리더십 확보를 동시에 도모해야 하는 상황임.

7. 세네갈

◆ 10월 보고서

가. 선박 입 · 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ENEGAL	WESTRM KIM	2025-09-02/ 2025-09-05	하역	다카르항	
SENEGAL	SEA DEFENDER	2025-09-06/ 2025-09-09	하역	다카르항	
스페인회사	MONTECELO	2025-09-08/ 2025-09-12	하역	다카르항	

SENEGAL	POINT DE ST LOUIS	2025-09-11/ 2025-09-15	하역	다카르항	
SENEGAL	ORIENTAL KIM	2025-09-11/ 2025-09-16	하역	다카르항	
스페인회사	EGALUZE	2025-09-15/ 2025-06-24	하역	다카르항	
SENEGAL	SEA DEFENDER	2025-09-18/ 2025-09-24	하역	다카르항	
SENEGAL	SEA FRONTIER	2025-09-18/ 2025-09-25	하역	다카르항	
SENEGAL	GRANADA	2025-09-19/ 2025-09-24	하역	다카르항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0. 06.	다카르항	576 EURO/L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0kg up	\$1,595/MT	
YF	3.4-10kg	\$1,495/MT	
YF	1.8-3.4kg	\$1,395/MT	
YF	1.5-1.8kg	\$1,245/MT	
YF	1.5kg under	\$1,045/MT	
SJ	3.4kg up	\$1,445/MT	
SJ	1.8-3.4kg	\$1,395/MT	
SJ	1.5-1.8kg	\$1,245/MT	
SJ	1.5kg under	\$1,045MT	
BE	10kg up	\$1,245/MT	
BE	3.4-10kg	\$1,245/MT	
BE	1.8-3.4kg	\$1,245/MT	
BE	1.5-1.8kg	\$1,095/MT	
BE	1.5kg under	\$895/MT	

라. 기타사항

- 2024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고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선정된 다카르 항
- 다카르 항은 2024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고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평가되며, 2023년 -82점에서 2024년 +23점으로 크게 개선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성과 향상을 보인 항만 중 하나로 꼽힘. 이는 수년간 지속된 항만 인프라와 물류 서비스 투자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 2008년부터 DP World가 운영해온 다카르 항은 신규 크레인 도입, 보관 구역 확장,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으며, 말리 등 내륙국과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도로·철도 개선과 세관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병행해 통관과 환적 시간을 크게 단축함.
 - 아프리카 전반에서는 여전히 많은 항만이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다카르의 급성장은 명확한 투자 전략과 물류·제도 개혁이 항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음을 보여줌. 북아프리카의 포트사이드와 탕헤르메드, 그리고 중국 주요 항만들과 함께 다카르 항은 지역 및 글로벌 항만 경쟁 구도 속에서 주목받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11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enegal	PLAYA DE LAGE	2025-10-02/ 2025-10-06	하역	다카르항	
Senegal	WESTRM KIM	2025-10-07/ 2025-10-17	하역	다카르항	
스페인회사	EGALUZE	2025-10-07/ 2025-10-09	하역	다카르항	
Senegal	GRANADA	2025-10-07/ 2025-10-11	하역	다카르항	

Senegal	ORIENTAL KIM	2025-10-13/ 2025-10-17	하역	다카르항	
Senegal	ALBONICA	2025-10-14/ 2025-10-17	하역	다카르항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0. 24.	다카르항	550 EURO/MT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0kg up	\$1,775/MT	
YF	3.4-10kg	\$1,675/MT	
YF	1.8-3.4kg	\$1,575/MT	
YF	1.5-1.8kg	\$1,425/MT	
YF	1.5kg under	\$1,225/MT	
SJ	3.4kg up	\$1,625/MT	
SJ	1.8-3.4kg	\$1,575/MT	
SJ	1.5-1.8kg	\$1,425/MT	
SJ	1.5kg under	\$1,225/MT	
BE	10kg up	\$1,425/MT	
BE	3.4-10kg	\$1,425/MT	
BE	1.8-3.4kg	\$1,425/MT	
BE	1.5-1.8kg	\$1,275/MT	
BE	1.5kg under	\$1,075/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다카르 항만청(PAD) : Sallaum Lines의 친환경 선박 ‘L’ Océan Breeze’ ,
아프리카 첫 기항

○ 다카르 항만청(PAD)은 세계은행과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서

‘2024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고의 컨테이너 항만’ 으로 선정된 데 이어, 친환경 신조 RoRo선 ‘L’ Océan Breeze’ 의 첫 아프리카 기항을 맞이하며 경쟁력을 강화함.

- 이 선박은 LNG와 전통 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연료 시스템을 갖추고, 7,500 CEU의 적재 능력으로 탄소와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임. Sallaum Lines의 나탈리 살룸 이사는 다카르를 “단순한 정박지가 아닌 글로벌 친환경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연결고리” 라 평가하며, 다카르 항의 지리적 강점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 평가함.
- 이번 성과는 항만 평가 순위 상승에 이어 이루어진 것으로, 다카르가 서아프리카 및 국제 물류 시장의 주요 관문이자 ‘친환경 해상 물류의 핵심 허브’ 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12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enegal	SEA DEFENDER	2025-11-01/ 2025-11-09	하역	다카르항	
Senegal	GRANADA	2025-11-05/ 2025-11-12	하역	다카르항	
Senegal	XIXILI	2025-11-11/ 2025-11-16	하역	다카르항	
Senegal	PONTT SAINT LOUIS	2025-11-13/ 2025-11-16	하역	다카르항	
Senegal	ORIENTAL KIM	2025-11-14/ 2025-11-19	하역	다카르항	
Senegal	GRANADA	2025-11-17/ 2025-11-20	하역	다카르항	
Senegal	SAN FRANSISO	2025-11-20/ 2025-11-24	하역	다카르항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2. 26.	다카르항	641 EURO/MT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0 Kg Up	\$1,620/MT	
YF	3.4~10kg	\$1,520/MT	
YF	1.8~3.4kg	\$1,420/MT	
YF	1.5~1.8kg	\$1,270/MT	
YF	1.5kg under	\$1,070/MT	
SJ	3.4kg up	\$1,470/MT	
SJ	1.8~3.4kg	\$1,420/MT	
SJ	1.5~1.8kg	\$1,270/MT	
SJ	1.5kg under	\$1,070/MT	
BE	10kg up	\$1,270/MT	
BE	3.4~10kg	\$1,270/MT	
BE	1.8~3.4kg	\$1,270/MT	
BE	1.5~1.8kg	\$1,120/MT	
BE	1.5kg under	\$920/MT	

라. 세네갈 기타 동향

☐ 리프트 벨리열 발생현황

- 세네갈에서는 9월 21일 북동부 지역에서 리프트벨리열이 최초 발생한 이후 중부를 거쳐 남부 지역까지 확산 중임. 2025년 11월 30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530명이며, 사망자 31명, 완치자 490명으로 집계됨. 지역별로는 생누이 지역에서 361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마탐(39명), 파틱(38명), 카올락(31명), 루가(22명), 다카르

(17명) 순으로 확인됨. 이 외에도 탐바쿤다(10명), 띠에스·콜다(각 4명), 카프린·케두구(각 2명) 등 다수 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보고되어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엠폍스 발생현황

- 8월 22일 첫 확진자 사례가 보고된 이후 총 9건의 확진 사례와 2건의 의심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음. 확진자 9명 전원은 완치된 것으로 보고됨. 지역별로는 다카르에서 확진 및 의심 사례 9명, 지겐쇼우에서 확진 또는 의심 사례 1명이 확인되었음. 또한 5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당국이 관찰 및 추적 관리 중임.

마. 세네갈 인근 국가 기타 동향

□ 기니비사우 쿠데타 발생

- 11월 26일(수) 기니비사우 군은 “국가완전장악“을 선포하고 대통령을 해임하며 현재 진행중인 선거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 기니비사우 “질서외복을 위한 군사령부“에 의한 발표된 바에 따르면 기니비사우의 모든 육로 항공 및 해상 국경이 폐쇄 되었으며 오후 7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가 시작됨.

□ 만리 소식

- 최근 만리 내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이슬람과 무슬림지지그룹(INIM)“의 활동 범위가 확대 되면서 유조트릭 공격과 이에 따른 유류부족 문제심화 등으로 치안이 악화 되고 있는 만리에 경보) 한국시간 11.4일(화) 00시부터 여행금지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

8. 뉴질랜드

◆ 10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DW NEW ZEALAND LTD.	DONG WON 530	2025-10-04/	하역 및 연간수리	LYTTELTON	
DW NEW ZEALAND LTD.	DONG WON 519	2025-09-28/ 2025-09-29	유류 및 하역	TIMARU	
JAICO LTD	FORTUNNI	2025-09-26/	하역 및 연간 수리	LYTTELTON	
JAICO LTD	PACINUI	2025-10-05/ 2025-10-06	유류 및 하역	DUNEDIN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10..07	Z	937 USD/MT	MGO Dunedin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WAREHOU	3L/2L/L/M/S	2250/1950/-/-/- USD/MT
BARRACOUTA	2L/L/M/S/	1900/1850/1650/1550 USD/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뉴질랜드 어업, 수십 년 된 어족자원 데이터 갱신 착수

- 뉴질랜드 북섬 남부 해역(Area 2)의 어족자원 조사는 1996년 이후 약 30년간 신규 조사 없이 당시 자료를 기반으로 어획 할당량(TAC)이 설정되어 왔음. 이로 인해 실제 어획 상황과 할당량 간 괴리가 발생하여, 도미(snapper)는 어획량 대비 할당량이 낮고 일부 어종은

할당량이 과도해 남획 위험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Gisborne Fisheries, Seafood NZ 등 산업계와 정부 과학자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데이터 수집을 추진 중이며, Earth Science New Zealand의 리처드 오드리스콜 박사가 참여하는 등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한 어획량 관리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뉴질랜드 수산·양식업 확대를 위한 해양 공간 필요 (RNZ 보도)

- 2025년 6월 24일 발표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어업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1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DW NEW ZEALAND LTD.	DONG WON530	2025-10-04/	하역 및 연간수리	LYTTELTON	
DW NEW ZEALAND LTD.	DONG WON519	2025-11-06/	하역 및 연간수리	LYTTELTON	
JAICO LTD	FORTUNNI	2025-09-26/	하역 및 연간수리	LYTTELTON	
JAICO LTD	PACINUI	2025-11-02/	하역 및 연간수리	LYTTELTON	
JAICO LTD	HAPPINUI	2025-11-08/	매수 후 수리	WHANGAREI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11.04	Z	955 USD/MT	MGO Dunedin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LING	3L/2L/L/M	5550/5550/5150/4500 USD/MT
HOKI	2L/L/M/S	2150/2150/1950/1750 USD/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세계 최초 해조류 나노셀룰로오스 바이오파이너지 개소

- 뉴질랜드 파에로아(Paeroa)에 세계 최초의 상업용 해조류 나노셀룰로오스 바이오파이너지가 설립되었음. 가족기업 AgriSea가 주도한 이 시설은 해조류 바이오자극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해 친환경 고부가가치 나노셀룰로오스 하이드로겔을 생산하며, 해당 소재는 의료·농업·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 가능함.
- 본 사업은 뉴질랜드의 순환형 바이오경제 및 해조류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과 기술 라이선스를 통해 해양 기반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뉴질랜드 해역, 해양 열파 증가로 인한 생태, 어업 위기 심화

- 뉴질랜드 해양 연구기관 Earth Sciences New Zealand(구 NIWA)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주변 해역에서는 장기적 해수 온난화와 단기 해양 열파가 점차 빈번·강화되고 있음. 1982~2022년 동안 해수면 온도는 10년당 0.2~0.3℃, 해저 온도는 약 0.1℃ 상승했으며, 동해안·태즈먼해·채텀 라이즈 인근에서 온난화가 두드러짐. 북섬 해역은 고온화가 가장 빠르고, 남섬은 열파가 더 길고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이로 인해 어종 분포 변화 및 일부 어업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기후 변화 대응형 어업 관리와 해양 열파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임. 해당 시스템은 MBIE Endeavour Fund 지원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어업·해양 산업 및 원주민 공동체의 사전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12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DW NEW ZEALAND LTD.	DONG WON530	2025-10-04/ 2025-12-12	하역 및 연간수리	LYTTELETON
DW NEW ZEALAND LTD.	DONG WON530	2025-12-14/ 2025-12-17	하가 후 수리	DUNEDIN
DW NEW ZEALAND LTD.	DONG WON519	2025-11-06/	하역 및 연간수리	LYTTELETON
JAICO LTD	FORTUNNI	2025-09-26/ 2025-12-11	하역 및 연간수리	LYTTELETON
JAICO LTD	PACINUI	2025-11-02/ 2025-11-22	하역 및 연간수리	LYTTELETON
JAICO LTD	HAPPINUI	2025-11-08/ 2025-12-28	매수 후 수리	WHANGAREI
JAICO LTD	HAPPINUI	2025-12-02	하가 후 수리	DUNEDIN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12.02.	Z	850 USD/MT	MGO Dunedin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BARRACOUTA	2L/L/M/S	2050/1950/1850/1700 USD/MT

라. 대외 활동 내역

일자/장소	지원회사	지원(협의) 내용
2025.12.04./ DUNEDIN	JAICO LTD	선원 격려차 방문

마. 해양·수산업 동향

☐ 수산업계, 코로나만델 트롤 금지에 항소 제기

- 뉴질랜드 수산업 단체 Seafood New Zealand는 와이카토 지역위원회의 코로만델 연안 저인망(바닥 트롤) 금지 계획이 법적 권한을 초과한 조치라며 항소를 제기했음. 수산업계는 어업 관리 권한이 국가 차원의 Fisheries Act에 있으며, 지역위원회가 RMA를 근거로 어업을 규제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반면 환경단체는 해당 조치가 어업 규제가 아닌 해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환경관리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음. 이번 사안은 Fisheries Act와 RMA 간 권한 충돌이 핵심 쟁점으로, 항소 결과에 따라 뉴질랜드 연안 어업 규제 체계의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주)자이코, 트롤선박 구매 후 수리 중

- 포추누이, 패시누이에 이어 뉴질랜드에서 장기간 조업해오던 TOMI MARU 87호를 구매하여 수리 중에 있음. 세 번째 선박명은 해피누이고, 1월 중순부터 오징어 조업을 시작할 계획임

9. 모리셔스

◆ 10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SEATRADE	ORANGE SPIRIT	2025-09-26/	하역	포트루이스 (C.N.O.I)
IBL	AFFINIS	2025-09-08/ 2025-09-27	하역	포트루이스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0. 08.	ENGEN	0.69 USD/L	MGO	

다. 해양·수산업 동향

- 세계 해사의 날 2025: 불렐 장관, 오세안 2025 사전 협의 대화 개시
 - 세계 해사의 날 2025(World Maritime Day 2025) 기념 행사가 “우리의 바다, 우리의 의무, 우리의 기회”를 주제로 벨 빌리지 라지브 간디 과학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아빈 불렐(Dr Arvin Boolell) 장관이 ‘레 아시즈 드 로세앙 2025’ 사전 협의 대화를 공식 출범시켰음. 행사에서는 해양 분야 진로·취업 전시회가 함께 열렸고, 주요 부처 장관과 외교단이 참석했음.
 - 불렐 장관은 연설을 통해 모리셔스의 무역·식량안보·관광·기후 회복력이 바다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그린 포트·재생에너지·친환경 연료·디지털화를 통한 블루이코노미 육성과 인도양의 지속 가능한 해양 허브로의 도약 계획을 설명했다. 질 파브리스 다비드 주니어 장관은 모리셔스를 220만km² EEZ를 가진 ‘빅 오션 스테이트’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과 함께, 레 아시즈 드 로세앙 2025가 항만·해운 현대화와 탈탄소화를 실현하는 핵심 과정임을 강조했다.

라. 일반 동향

- 인도, 모리셔스에 6억 8천만 달러 규모 경제 지원 약속
 - 인도는 모리셔스에 보건·인프라·해양 안보 프로젝트를 위해 약 6억8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음. 해당 지원은 보조금과 차관 형태로 이루어지며,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영향력 경쟁 속에 모리셔스 내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됨.
 - 이번 지원에는 차고스 제도 해양보호구역 개발 및 감시 활동, 병원 건립, 항만 재개발, 헬리콥터 제공, 2,500만 달러 예산 지원 등이 포함됨. 인도는 모리셔스의 차고스 제도 영유권을 지지하는 한편, 디에고 가르시아 미군 기지의 지속적 존재를 통해 중국 견제 전략을 병행하고 있음.

◆ 11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NAVIERA GALDAR-BERMO	IZAR ARGIA	2025-10-27/	하역	포트루이스 (CNOI)
SALGIR SHIPPING LTD	SALGIR	2025-10-06/ 2025-10-31	하역	포트루이스 (CNOI)
ASTILLEROS DE MURUETA	ELAI ALAI	2025-10-28/ 2025-11-05	하역	포트루이스 (CNOI)
SAPMER	FRANCE TERRE	2025-10-29/	상가수리	포트루이스 (CNOI)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11.10	ENGEN	0.68 USD/L	MGO	

다. 해양·수산업 동향

☐ 모리셔스, 차고스 제도 광범위 해양보호구역 선언

- 모리셔스 정부는 약 64만 5천km² 규모의 차고스 제도 해양보호구역 (CAMP)을 공식 지정했음. 이번 조치는 차고스 지역의 해양 생태계 보전과 주민의 지속 가능한 재정착을 병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구역 내에서는 상업적 어업이 전면 금지되었음.
- CAMP는 IUCN 기준에 따라 일반 보전 구역, 전통 재정착 구역, 엄격 보전 구역, 서식지 보호 구역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되며, 구역 별로 제한적 전통 어업·거주·관광만 허용됨. 이는 환경 보호와 지역 공동체 권리를 동시에 고려한 장기적 해양 관리 정책 사례로 평가됨.

□ 인도, 모리셔스에 6억8천만 달러 규모의 특별 경제 패키지 발표 —
포트루이스 항만 재개발 및 차고스 해양보호구역 개발 포함

- 인도는 모리셔스에 총 6억8천만 달러 규모의 특별 경제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포트루이스 항만 재개발, 차고스 해양보호구역 개발·모니터링, 국제공항 관제탑 건설, 도로 확장 등 인프라와 해양 안보를 포괄하는 핵심 사업이 포함됨. 이번 합의는 모디 총리와 람굴람 총리 회담 이후 체결되었으며, 양국 간 해양 안보·국방·보건·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이번 지원은 차고스 제도에 대한 모리셔스의 주권을 재확인하는 한편, 디에고 가르시아 인근 해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반영한 조치임. 모리셔스 정부는 이를 단순 원조가 아닌 미래를 위한 공동 투자로 평가했으며, 인도는 EEZ 관리·해저조사·해양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인도양 지역 내 영향력과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음.

◆ 12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COMPAGNIE FRANCAISE DU THON OCEANIQUE (CFTO)	GEVRED	2025-11-07/	상가수리	포트루이스 (CNOI)
SALGIR Shipping Ltd	SALGIR	2025-11-30/	하역	포트루이스 (CNOI)
SAPMER	FRANCHE TERRE	2025-10-29/ 2025-11-18	상가수리	포트루이스 (CNOI)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12.08.	ENGEN	0.69 USD/L	MGO	

다. 해양·수산업 동향

□ 모리셔스, 해양 안보 고위급 회의 개최

- 제8차 제다 개정안(Jeddah Amendment)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의가 2025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모리셔스 플릭앙플락에서 개최되었으며, IMO, EU, IOC 및 서부 인도양·아덴만 지역 국가 대표단이 참석했음. 모리셔스 정부는 광대한 EEZ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와 대양 국가로서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발전 비전을 강조하며, 해양 안보가 국경을 초월한 공동 책임임을 재확인했음.
- 지부티 행동강령(DCoC)은 2017년 제다 개정안을 통해 해적 대응을 넘어 인신매매, 밀수, IUU 어업, 환경범죄 등 초국가적 해양 범죄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현재 DCoC/JA 체계 하에서 정보공유·공동훈련·역량강화 중심의 지역 해양안보 협력이 추진되고 있음. EU는 Safe Seas Africa 등 다양한 해양안보 프로젝트를 통해 서부 인도양 지역에 연간 8,000만 유로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음.

□ 모리셔스, 해양 안보 고위급 회의 개최

- 2025년 10월 말 이후 소말리아 분지와 서부 인도양에서 해적 활동이 조직적으로 재개되었으며, 11월 6일 HELLAS APHRODITE호 피랍 사건을 계기로 해운·보험업계의 우려가 다시 확대되고 있음.
- (1) 최근 해적 활동 증가: 사실과 일정
Dryad Global에 따르면, UKMTO, MSCHOA, 다수의 해운 뉴스 매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적 활동 재개는 10월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해적 행동 그룹(PAG)이 피랍된 도우(dhow)를 모션으로 이용하면서 원거리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 이러한 모션은 소말리아 해안에서 300~600해리, 일부 사건에서는 최대 800해리 떨어진 먼 바다까지 공격을 가능하게 했음
- (2) 주요사건
2025년 11월 6일 몰타 선적 HELLAS APHRODITE호가 소말리아 Eyl 인근 560해리 해상에서 모션을 이용한 해적의 기관총·RPG 공격을 받아 탈취 시도가 발생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음. 최근

STOLT SAGALAND호 공격 격퇴, MV SPAR APUS호 회피 사례 등 일련의 사건은 해적들이 도우선을 모선으로 활용해 원거리 무장 공격을 재개하고 있음을 시사함.

○ (3) 원인과 배경

소말리아 해적 활동 재개는 국제 해군 전력이 후티 대응으로 홍해에 집중되며 소말리아 분지 순찰이 약화된 틈을 이용한 결과이며, 2024년 ABDULLAH호 억류 후 고액 몸값 지급 사례로 수익성이 재확인되면서 금전적 유인이 강화된 데 따른 것임. 여기에 불법 어업에 대한 지역 불만과 해적 세력의 알샤바브·후티 등 무장단체 연계 가능성도 주요 배경으로 지적됨.

○ (4) 해적위협에 대한 위험 평가 및 산업 대응 지침

Risk Intelligence와 MSCHOA는 소말리아 분지와 아덴만의 해적 위협이 여전히 높으며, 해적이 모선을 활용해 최대 800해리까지 원거리 무장 공격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음. 이에 따라 선박은 BMP5 준수, UKMTO·MSCHOA 신고, 물리적 방어 및 보험 대응을 포함한 고위험 해역 관리가 필요함.

참고

명예해양수산관 현황 및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주소
남태평양 도서국	사모아 (-1일+4시간)	 허성림 (‘55년생)	Tel. +1-684-699-6545 Mobile +1-684-733-4567 e-mail hhsamsung@yahoo.com 임 기 '25.10.15. ~ '27.10.14.	P.O.BOX 3170, Pago, pago American Samoa 96799
	피지 (+3시간)	 김종태 (‘68년생)	Tel. +679-330-7188 Mobile +679-999-2523 FAX +679-331-1705 e-mail ckpfj@naver.com 임 기 '24.06.01. ~ '26.05.31.	44 Pathik Namadi Heights, Suva, Fiji
	파푸아뉴기니 (+1시간)	 정승화 (‘65년생)	Tel. +675-321-8137 Mobile +675-7928-8888 FAX +675-321-4224 e-mail jc651016@gmail.com 임 기 '23.05.10. ~ '25.05.09.	P.O.Box 619, Gordons, N.C.D., Papau New Guinea
	아르헨티나 (-12시간)	 이상우 (‘75년생)	Tel. +54-223-495-0712 /493-4934 Mobile +54-9-223-546-3919 e-mail kargeexport@gmail.com 임 기 '24.06.01. ~ '26.05.31.	Marcos Sastre 1660 Mar del plata Bs.As Argentina c.p 7600
	인도네시아 (-2시간)	 박상천 (‘65년생)	Tel. +62-21-2287-4165 Mobile +62-821-2534-3214 FAX e-mail scpark@hyundaimovex.co.id 임 기 '23.10.15. ~ '25.10.14.	Rukan Avenue Nomor 8-135 Perumahan Jakarta Garden City Cakung Timur Jakarta 13910 Indonesia
	가나 (-9시간)	 이윤홍 (‘60년생)	Tel. +233-303-200995 Mobile +233-24-2168654 FAX +233-303-200933 e-mail skshipafrica@yahoo.com sskmarco@yahoo.com 임 기 '24.06.01. ~ '26.05.31.	HOUSE NO. RP/2/19, COMM2, NEAR FISHERIES BLDG, PMB COMM 1, TEMA, GHANA
	세네갈 (-9시간)	 김점봉 (‘67년생)	Tel. +221-33-853-0850 Mobile +221-77-880-9080 FAX +221-33-853-0851 e-mail senegalkim@gmail.com 임 기 '24.01.04. ~ '26.01.03.	km 9.5 Rte de Rufisque BP: 3479 Dakar, Senegal
	뉴질랜드 (+3시간)	 윤정환 (‘52년생)	Tel. +64-3-344-1617 Mobile +64-27-437-6210 FAX +64-3-3444-1617 e-mail seajho@xtra.co.nz 임 기 '24.08.20. ~ '26.08.19.	PO BOX 20473 Bishopdale(P.C8 543) 335 West Coast Road, Templeton,(P.C7 676)Christchurch, New Zealand
	모리셔스 (-5시간)	 이동춘 (‘62년생)	Tel. +230-217-1700 Mobile +10-5796-5453 FAX e-mail kmarinelee@gmail.com 임 기 '23.10.15. ~ '25.10.14.	International Korean Marine Ltd. Albion Docks, Trou Fanfaron Port Louis, Mauritius 11230